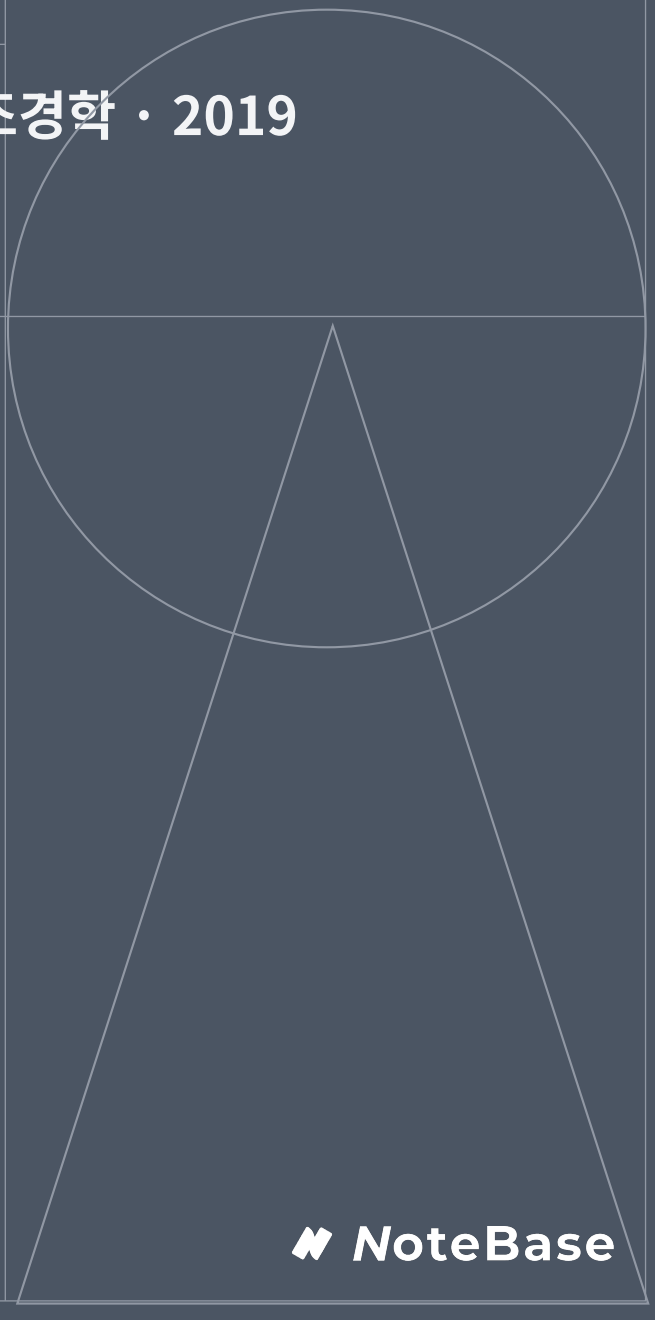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19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학 · 2019

1. 고대 그리스 시대에 생겨난 옥외공간으로서 현대 공공 조경의 의미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① 아트리움　　② 호르투스

③ 아고라　　④ 지구라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대의 옥외공간 가운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대 공공 조경과 가장 가까운 공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의 중심에 마련된 공공 광장으로, 시민의 정치·상업·사회 활동이 이루어진 열린 공간이다.
아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의 중앙 공간, 호르투스는 고대 로마의 정원,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계단식 신전 건축물이다. 공공성·시민 이용·도시 중심의 열린 공간이라는 기준에서는 아고라가 현대 공공 조경과 가장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아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 내부의 중앙 홀 또는 안뜰 성격을 지닌 사적 생활 공간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고대 그리스의 공공 옥외공간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고대 로마 주택의 중앙 공간'이다.
② X — 호르투스는 고대 로마의 정원을 가리키며 주로 주거와 결합된 사적 정원 성격이 강하다. 틀린 부분은 이를 고대 그리스 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고대 로마의 정원'이다.
③ O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공공 광장으로서 집회, 교류, 상업 등 시민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였다. 공공성과 개방성 면에서 현대 공공 조경의 의미와 가장 잘 일치한다.
④ X —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계단식 신전 또는 신전 기반 구조물로, 시민의 일상적 공공 활동을 위한 그리스의 광장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이를 고대 그리스의 공공 옥외공간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기념 건축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용어가 모두 고대 공간·조경사와 관련되어 보이지만, 시대와 공간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 특히 ① 아트리움과 ② 호르투스의 정원·옥외공간 이미지에 끌리기 쉽지만, 문제의 핵심 표현은 '고대 그리스'와 '공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공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문명권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사적 주거 공간인지 시민 공동체의 공공 공간인지 기능을 구분한다. '그리스·시민·광장·집회·상업'이 함께 제시되면 아고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고라는 그리스의 공공 광장, 아트리움과 호르투스는 로마의 주거 관련 공간,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이다.

NoteBase

2. 한국의 전통 조경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원은?

<보기>

-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을 묘사한 정원
- 왕과 신하의 정적인 위락공간, 동적인 연회 장소, 뱃놀이 장소
- 서남쪽에 건물이 배치되고 서쪽과 남쪽은 직선형
- 동북쪽에 궁원이 배치되고 동쪽과 북쪽은 곡선형
- 가산은 무산십이봉을 상징하며 바닥은 강회로 다짐

① 임류각 ② 궁남지
③ 곡수거 ④ 안압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신선사상, 왕실 연회와 뱃놀이, 방위별로 달리 조성한 호안, 무산십이봉을 상징하는 가산, 강회로 다진 바닥을 종합하여 정원 유적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압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에 조성된 연못 중심의 궁원이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넓은 수경관, 왕실의 연회·뱃놀이 기능, 직선과 곡선을 함께 사용한 호안, 동북쪽 가산이라는 단서가 서로 결합된다. 특히 가산이 무산십이봉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신선사상이 반영된 안압지의 대표적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임류각은 백제의 궁원 관련 누각이므로, 보기처럼 방위별 호안 구성과 무산십이봉을 상징하는 가산이 확인되는 연못 정원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임류각'이며, 올바르게는 '안압지'이다.
② X — 궁남지는 백제의 궁원 연못으로 섬과 버드나무 등의 조성 기록이 핵심이며, 보기의 왕실 연회·뱃놀이 공간 및 무산십이봉형 가산을 갖춘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궁남지'이며, 올바르게는 '안압지'이다.
③ X — 곡수거는 굽은 물길에 술잔을 띄우며 곡수연을 즐기던 유상곡수 시설을 가리킨다. 보기처럼 해안 풍경을 모사한 대규모 연못과 가산으로 이루어진 궁원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곡수거'이며, 올바르게는 '안압지'이다.
④ O — 안압지는 왕과 신하의 연회 및 뱃놀이에 이용된 연못 중심의 궁원이다. 서쪽·남쪽의 직선형 호안, 동쪽·북쪽의 곡선형 호안, 동북쪽 가산, 강회로 다진 바닥 등 보기의 단서가 모두 안압지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궁남지도 고대 궁원 연못이라는 점 때문에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결정적 단서는 '무산십이봉을 상징하는 가산'과 '서·남쪽 직선형, 동·북쪽 곡선형 호안'의 결합이며, 이는 안압지를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정원 식별 문제에서는 시대나 용도 하나만 보지 않고 연못의 호안 형태, 가산의 상징, 건물 배치와 이용 행태를 묶어 판단한다. '왕실 연회·뱃놀이 + 직선·곡선 호안의 병용 + 무산십이봉형 가산'이 함께 나오면 안압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압지는 바다 같은 연못, 직선과 곡선의 호안, 무산십이봉 가산이다.

NoteBase

3.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조경 양식이 발달하는 요인 중 사회·문화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의 발전 ② 민족성(民族性)

③ 예술사조 ④ 수량(水量)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역이나 국가별 조경 양식의 형성 요인을 자연환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문화적 요인은 한 사회의 기술, 민족적 특성, 예술 사조, 종교, 생활양식처럼 인간 집단의 문화와 활동에서 형성되는 요인이다.
자연환경적 요인은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물의 양처럼 해당 지역의 자연조건에서 비롯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민족성·예술 사조는 사회·문화적 요인이고, 수량(水量)은 자연환경적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학기술의 발전은 재료의 생산과 이용, 시공 방법 및 공간 조성 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
② O — 민족성은 공동체의 가치관, 관습, 생활양식에 반영되어 고유한 조경 양식을 형성하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
③ O — 예술 사조는 시대와 사회의 미적 가치 및 표현 방식을 조경 설계에 반영하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
④ X — '수량(水量)이 사회·문화적 요인이다'라는 분류가 틀렸다. 수량은 물의 풍부함이나 부족함을 뜻하는 자연조건이므로, 올바르게는 자연환경적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수경시설이나 물 이용 방식에는 문화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선지의 '수량' 자체는 물의 자연적 존재량을 뜻한다. 물을 활용한 설계와 물의 양이라는 자연조건을 혼동하면 ④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인이 인간 사회의 가치·기술·예술·관습에서 생겼는지, 기후·지형·물·토양 같은 자연조건에서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술·민족·예술은 사회문화, 기후·지형·수량은 자연환경이다.

NoteBase

4. <보기 1>에 나타난 정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보르비콩트 정원은 남북으로 1.2km, 동서로 600m 정도의 규모로 성관 전면의 중앙에서 뻗어 나가는 주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비스타를 형성하였다. 좌우 대칭으로 장식화단과 수로가 위치하며, 이들 화단은 수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기 2>

ㄱ. 이탈리아 정원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1세기 정도 빨리 시작되었다.
ㄴ. 평면기하학식 정원양식을 확립한 사람은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 1613~1700)이다.
ㄷ.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 1613~1700)는 보르비콩트(Vaux-le-Vicomte) 정원을 설계하였다.
ㄹ. 보르비콩트 정원과 같은 시기의 정원으로 빌라 란테(Villa Lante)를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의 성립 시기와 영향 관계, 앙드레 르 노트르의 업적, 보르비콩트와 빌라 란테의 조성 시기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은 중심축, 좌우대칭, 기하학적 화단, 수림 등을 이용해 질서와 원근감을 강조하는 정원양식이다.
앙드레 르 노트르: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양식을 확립한 대표적 조경가이며 보르비콩트 정원을 설계하였다.
보르비콩트: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프랑스 정원으로, 르 노트르의 축선 중심 설계가 잘 나타난다.
빌라 란테: 16세기 후반에 조성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으로, 보르비콩트보다 앞선 시기의 정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영향을 받았고 이탈리아보다 약 1세기 늦게 발달하였다. 따라서 ㄱ을 ㄷ으로 바꾸어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ㄱ은 영향의 방향과 선후가 뒤바뀌었고, ㄹ의 빌라 란테는 16세기 후반의 정원으로 17세기 중반의 보르비콩트보다 앞선다. 옳은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앙드레 르 노트르는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양식을 확립한 인물이며 보르비콩트 정원을 설계하였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빌라 란테와 보르비콩트는 같은 시기의 정원이 아니며, 빌라 란테가 보르비콩트보다 먼저 조성되었다. 따라서 ㄹ을 ㄴ으로 바꾸어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ㄱ에서는 '영향을 주었다'와 '빨리 시작되었다'를 이용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원의 영향 방향 및 성립 순서를 뒤집었다. ㄹ에서는 두 정원의 외형적 유사성 때문에 조성 시기까지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사의 인물·작품 문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 선행 →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 발달', '르 노트르 → 보르비콩트'의 두 연결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각 정원의 세기를 대조하면 영향 관계와 동시대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탈리아가 먼저, 프랑스가 나중이며, 르 노트르는 보르비콩트와 연결된다. 빌라 란테는 16세기 후반, 보르비콩트는 17세기 중반이다.

NoteBase

5. 조선시대 주택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뒷산과 만나는 자리에는 화계가 조성되었다.
② 주택의 자리는 신선사상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③ 사회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규제되었다.
④ 정원은 일상 주거생활 공간과 융합되어 있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주택 조경의 입지 원리, 후원 구성, 주택 규모 규제, 생활 공간과 정원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계: 주택 뒤쪽의 경사나 뒷산과 맞닿는 곳에 단을 쌓아 꽃과 나무를 심은 계단식 화단이다.
주택 입지: 배산임수와 같은 풍수지리 원리를 중시하였다.
가사규제: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형식을 제한한 제도이다.
주택 정원: 감상만을 위한 독립 공간이 아니라 마당·후원 등 일상생활 공간과 긴밀하게 결합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뒷산의 경사와 주택이 만나는 후면에는 지형을 활용하여 단을 만들고 화초와 나무를 심는 화계를 조성하였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신선사상의 원리'이다. 주택의 자리는 산과 물의 형세, 방위 등을 고려하는 풍수지리 원리를 적용하여 정하였다.
③ O — 조선시대에는 신분 질서를 주거에 반영한 가사규제로 주택의 칸수와 규모 등이 제한되었다.
④ O — 주택 정원은 마당과 후원 등 생활 영역 속에 구성되어 휴식, 가사, 재배 같은 일상 주거생활과 어우러졌다.

오답 포인트

②의 '신선사상'은 자연 친화적 정원관과 연관된 말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주택의 자리 선정에 직접 적용된 원리는 배산임수와 방위 등을 중시한 풍수지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택의 터와 방향을 묻는 선지는 풍수지리, 신분별 주택 규모를 묻는 선지는 가사규제, 뒷산 경사의 계단식 화단을 묻는 선지는 화계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터는 풍수지리, 규모는 가사규제, 뒷동산의 단식 화단은 화계이다.

NoteBase

6. 경관 우세 원칙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축을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로서 강력한 시각적 통일감을 형성하여 인공적인 질서를 더욱 강조한다.

① 대등 효과 ② 조형 효과
③ 집중 효과 ④ 대비 효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 우세 원칙의 여러 효과 가운데 축의 설정으로 시선을 모으고 시각적 통일감과 질서를 형성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중 효과는 축이나 초점 요소를 이용하여 관찰자의 시선을 일정한 방향이나 중심으로 모으는 효과이다. 축을 설정하면 공간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 체계에 결속되므로 강한 시각적 통일감과 인공적인 질서가 강조된다.
대등 효과는 둘 이상의 요소를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 않도록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는 효과이고, 조형 효과는 형태의 구성과 조작을 통해 시각적 형식미를 만드는 효과이며, 대비 효과는 서로 다른 성질을 나란히 두어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등 효과는 둘 이상의 요소를 비슷한 시각적 비중으로 다루는 효과이다. '축을 설정하여 통일감과 질서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대등 효과가 아니라 집중 효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조형 효과는 형태의 구성과 조작을 통해 형식미를 만드는 효과이다. 보기처럼 축으로 시선을 조직하고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조형 효과가 아니라 집중 효과이다.
③ O — 집중 효과는 축을 따라 시선을 일정한 방향이나 중심으로 모은다. 그 결과 강한 시각적 통일감과 인공적인 질서가 형성되므로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 대비 효과는 형태·색채·질감 등 서로 다른 성질의 차이를 강조하는 효과이다. '축을 통한 시각적 통일과 질서'는 대비 효과가 아니라 집중 효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강력한 시각적 통일감'만 보고 포괄적인 조형 효과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정답을 가르는 직접적인 단서는 '축을 설정함으로써'이며, 축은 시선을 한 방향으로 모아 집중 효과를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축·중심·초점·시선 유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집중 효과를 우선 판단한다. 비슷한 비중은 대등, 형태 구성은 조형, 서로 다른 속성의 강조는 대비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축은 시선을 모으고, 시선이 모이면 집중 효과가 생긴다.

NoteBase

7. 공원 유형 중 생활권 공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린이공원 ② 문화공원
③ 역사공원 ④ 수변공원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의 법정 분류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는 공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이다.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역사·문화·수변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으로, 생활권공원에 해당한다.
② X — 문화공원은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이다.
③ X —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시설물·유적·유물 등을 활용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이다.
④ X — 수변공원은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문화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도 주민의 휴식에 이용되므로 생활권공원처럼 보이지만, 법정 분류에서는 모두 특정 주제를 가진 주제공원이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법률상 분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면 생활권공원으로 판단한다. 역사·문화·수변 등 특정 주제가 명칭에 드러나면 주제공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생활권공원은 '소·어·근', 역사·문화·수변은 주제공원이다.

NoteBase

8. 주택정원의 공간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정은 대문과 현관 사이의 공간으로 주택의 첫인상을 좌우하며 입구로서의 단순성을 강조해야 한다.

② 주정은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가장 특색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③ 작업정은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저장고와 연결되고, 전정이나 후정과는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되도록 한다.

④ 후정은 퍼걸러, 정자, 목재 데크, 벤치, 야외 탁자 등을 설치하여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택정원의 공간을 전정·주정·작업정·후정으로 나눌 때 각 공간의 위치와 주된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정은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진입·첫인상 공간이고, 주정은 가족의 휴식과 옥외생활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정원의 핵심 공간이다. 작업정은 주방·세탁실·다용도실·저장고와 연계되는 가사 작업 공간이며, 후정은 건물 뒤쪽의 보조 공간이다.
전정은 진입, 주정은 휴식·관상, 작업정은 가사 작업, 후정은 후면 보조 기능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전정은 대문과 현관 사이에 놓여 방문자가 처음 접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주택의 첫인상을 좌우하며 진입 동선이 분명하도록 입구의 단순성을 강조하는 설명이 옳다.

② O — 주정은 주택정원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가족의 휴식과 관상을 위한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개성 있게 조성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 옳다.

③ O — 작업정은 취사·세탁·수납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하므로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저장고와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활 작업물이 드러나기 쉬우므로 전정이나 후정에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한다는 설명도 옳다.

④ X — 틀린 부분은 퍼걸러, 정자, 목재 데크, 벤치, 야외 탁자 등을 설치하는 가족의 사적인 휴식 공간을 '후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두고 가족의 옥외 휴식과 생활을 수용하는 공간은 주정이다. 올바르게는 '주정은 퍼걸러, 정자, 목재 데크, 벤치, 야외 탁자 등을 설치하여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적인 옥외생활 공간으로 조성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는 표현만 보면 집 뒤쪽의 후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퍼걸러·정자·데크·벤치·야외 탁자처럼 휴식과 체류를 위한 시설은 주정의 기능을 나타내므로, 위치 명칭보다 공간의 주된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문과 현관 사이의 진입·첫인상은 전정, 가족의 휴식·관상과 옥외생활은 주정, 주방·세탁·저장과 연계된 가사 활동은 작업정, 건물 뒤쪽의 보조 기능은 후정으로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전정은 첫인상, 주정은 가족 휴식, 작업정은 가사 작업, 후정은 후면 보조 공간이다.

NoteBase

9. 조경 설계에 사용되는 설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케치와 조감도는 3차원 표현도에 해당한다.

② 분석도면이나 개념도는 설계를 마치고 작성하는 도면이다.

③ 정사형 투시도는 평면도를 그대로 입체로 보이게 하는 도면이다.

④ 입면도와 단면도는 물체의 수직면과 수직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경 설계도면의 표현 방식과 작성 단계별 용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분석도와 개념도는 설계 완료 후가 아니라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작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스케치·조감도: 공간의 입체감과 전체 모습을 3차원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도이다.
분석도·개념도: 대상지의 조건을 분석하고 설계의 기본 생각과 공간 구성을 발전시키는 설계 과정의 도면이다.
정사형 투시도: 평면의 형태와 치수를 유지하면서 높이 방향을 더해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입면도·단면도: 수직면에서 본 외관 또는 절단된 내부의 수직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스케치와 조감도는 공간의 형태와 배치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므로 3차원 표현도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설계를 마치고 작성하는'이다. 분석도는 설계에 필요한 대상지 조건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개념도는 설계의 기본 구상과 공간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작성한다. 올바르게는 '분석도와 개념도는 설계안을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도면이다'이다.
③ O — 정사형 투시도는 평면의 형상을 바탕으로 높이 방향을 부여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며, 소실점을 이용하는 투시도와 달리 평행한 선을 평행하게 표현한다.
④ O — 입면도와 단면도는 모두 수직면을 기준으로 물체의 외관이나 절단면의 수직적 구성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설계를 마치고'가 함정이다. 분석도와 개념도는 완성된 설계의 최종 표현물이 아니라, 각각 대상지 분석과 기본 구상을 통해 설계안을 만드는 과정에 쓰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면을 표현 차원과 작성 목적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스케치·조감도·정사형 투시도는 입체 표현, 입면도·단면도는 수직 구성 표현, 분석도·개념도는 설계 과정의 검토와 구상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분석은 조건 파악, 개념은 구상 정리, 조감·정사형은 입체 표현, 입면·단면은 수직 표현이다.

NoteBase

10. ( )에 적합한 경관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은(는) 시야(視野)에 장애가 없이 탁 트인 경관을 말하는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발 아래 경관 또는 먼 바다에 나가 조망하는 수평선, 드넓은 대평원의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전(全) 경관　② 위요(圍繞) 경관
③ 초점(焦點) 경관　④ 세부(細部) 경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야의 개방 정도와 시선을 끄는 방식에 따라 전(全) 경관, 위요 경관, 초점 경관, 세부 경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全) 경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넓은 범위를 한눈에 조망하는 탁 트인 경관이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는 발아래 풍경, 먼바다의 수평선, 넓은 대평원이 대표적이다.
위요(圍繞) 경관: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 건축물 등이 공간을 둘러싸 폐쇄감이나 포근함을 형성하는 경관이다.
초점(焦點) 경관: 특정 대상이나 지점이 시선을 강하게 끌어 경관의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세부(細部) 경관: 가까운 거리에서 대상의 형태, 질감, 색채 등 세밀한 부분을 감상하는 경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全) 경관은 장애물 없이 시야가 탁 트여 넓은 장면 전체를 조망하는 경관이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먼바다의 수평선, 대평원이라는 제시 사례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위요(圍繞) 경관'이다. 위요 경관은 주변 요소가 공간을 둘러싸는 경관이며, 제시문의 탁 트인 경관은 '전(全) 경관'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초점(焦點) 경관'이다. 초점 경관은 특정 대상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경관이며, 제시문처럼 넓은 범위 전체를 보는 경관은 '전(全) 경관'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세부(細部) 경관'이다. 세부 경관은 가까이에서 대상의 세밀한 형태나 질감을 보는 경관이며, 제시문의 원거리·광역 조망은 '전(全) 경관'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높은 산봉우리'나 '수평선'처럼 눈에 띄는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초점 경관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특정 대상에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없는 시야로 넓은 장면 전체를 조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탁 트임·한눈에 넓게 조망’이면 전 경관, ‘주변이 둘러쌈’이면 위요 경관, ‘특정 대상에 시선 집중’이면 초점 경관, ‘가까이에서 질감과 형태를 관찰’이면 세부 경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은 전체 조망, 위요는 둘러쌈, 초점은 시선 집중, 세부는 가까이 관찰이다.

NoteBase

11. <보기 1>에 나타난 조경 식물 생산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우량 형질의 식물체를 얻기 위해 식물의 가지, 눈 등의 접수를 채취하여 뿌리가 있는 대목에 유착시켜 독립된 개체를 얻는 번식 방법

<보기 2>

ㄱ. 접수는 장차 자라서 줄기와 가지가 될 부분으로, 형질이 뛰어나고 품종이 확실한 것으로 지난해에 자란 충실한 가지와 눈을 이용한다.
ㄴ. 대목은 뿌리가 있는 부분으로, 접수와 친화성이 있는 야생 수종의 실생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ㄷ. 동일 형질의 개체를 일시에 다수 증식시킬 수 있다.
ㄹ. 대목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세를 조절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접목에서 접수와 대목의 의미, 재료 선택 기준, 영양번식으로서의 장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목은 우량한 식물의 가지나 눈인 접수를 뿌리가 있는 대목에 붙여 하나의 식물체로 기르는 영양번식 방법이다. 접수는 증식하려는 우량 형질을 담당하고, 대목은 뿌리의 생육 특성·환경 적응성·수세 등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③ X
ㄱ, ㄴ, ㄷ은 모두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제외한 것이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④ O
ㄱ은 접수가 장차 줄기와 가지가 될 부분이며 형질이 우수하고 품종이 확실한 전년도 충실지의 가지와 눈을 이용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은 대목으로 접수와 접목 친화성이 있고 뿌리 기능이 안정적인 야생 수종의 실생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ㄷ은 접목이 모체의 유전적 형질을 유지하는 영양번식이어서 동일 형질의 개체를 다수 증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ㄹ은 대목의 왜화성·강건성 등을 활용해 수세를 조절하고 토양 및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ㄱ~ㄷ이 익숙한 접목 설명이라 ㄹ을 부가적인 효과로 보고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대목은 단순히 뿌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목 개체의 수세와 환경 적응성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목 문항에서는 접수는 ‘유지할 우량 형질’, 대목은 ‘뿌리·수세·환경 적응성’을 담당한다고 나누어 판단한다. 또한 접목은 영양번식이므로 동일 형질의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접수는 품종과 지상부, 대목은 뿌리와 수세·적응성, 접목은 동일 형질 증식이다.

NoteBase

12. 누(樓)와 정(停)을 비교하여 누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누는 정자와 비교하여 사적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② 누는 정자와 비교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규모가 작다.
③ 누는 대체로 이층 구조로 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누는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였으며, 고을의 수령은 정자를 많이 이용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누(樓)와 정(亭)을 공간의 공공성, 규모, 형태, 구조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樓): 여러 사람이 모여 연회·집회·관람 등에 이용하는 비교적 크고 공적인 건축물로, 대체로 아래층을 트고 위층에 마루를 둔 중층 구조이다. / 키워드: 공적·대규모·중층
정(亭): 자연 속에서 휴식·조망·수양을 위해 세운 비교적 작고 사적인 건축물로, 입지와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 / 키워드: 사적·소규모·다양한 형태
핵심 대비: 누는 공적이고 규모가 크며 중층인 경우가 많고, 정은 사적이고 규모가 작으며 형태가 다양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적 공간'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누는 정자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올바르게는 '누는 정자와 비교하여 공적 공간으로 이용하였다'이다.
② X —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규모가 작다'는 누보다 정자의 특징이다. 누는 정자보다 규모가 크고 중층 형식이 일반적이다. 올바르게는 '정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누보다 규모가 작다'이다.
③ O — 누는 대체로 아래층이 트이고 위층에 마루를 둔 이층 구조이며, 주거용 방을 두기보다 개방된 마루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X — '고을의 수령은 정자를 많이 이용하였다'는 표현이 틀렸다. 누는 관아 등에 설치되어 수령을 비롯한 관원과 여러 계층이 공적으로 이용한 반면, 정자는 주로 사대부층의 휴식·수양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올바르게는 '누는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였으며, 고을의 수령은 누를 공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누와 정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누각에서 조망과 휴식이 이루어진다는 점만 보고 사적 공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④는 누를 여러 계층이 사용했다는 앞부분과 수령의 이용 공간을 정자로 돌린 뒷부분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는 '공적·큰 규모·중층·개방된 마루', 정은 '사적·작은 규모·다양한 형태'라는 네 가지 대비축으로 판단한다. 한 선지에 두 사실이 결합되면 각각의 사실을 분리하여 모두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누는 여럿이 쓰는 큰 중층 공간, 정은 개인이 쉬는 작은 조망 공간이다.

NoteBase

13. 동선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해야 한다.
② 성격이 다른 동선은 반드시 분리한다.
③ 동선의 교차를 피하고 이용도가 높은 동선은 짧게 한다.
④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동선폭은 0.8~1m로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선 설계의 기본 원칙과 보행 인원에 따른 적정 동선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선은 이용자가 목적지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이다. 좋은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하며, 성격이 다른 흐름은 분리하고, 교차와 우회를 줄이며, 이용량과 통행 방식에 맞는 폭을 확보한다.
동선의 길이는 이용도가 높을수록 짧고 직접적으로 계획하며, 동선폭은 통행 인원과 이용 강도에 따라 넓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단순하고 명쾌한 동선은 이용자가 방향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불필요한 우회와 혼란을 줄이므로 바람직하다.
② O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처럼 성격·속도·목적이 다른 동선은 서로의 간섭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O — 동선의 교차는 충돌과 혼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이용도가 높은 주요 동선은 이동 효율을 위해 짧고 직접적으로 계획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동선폭은 0.8 ~ 1*m*'라는 표현이다. 0.8 ~ 1*m*는 2인이 나란히 걷기에는 부족한 폭이다. 올바르게는 2인의 신체 점유폭과 통행 여유폭을 함께 고려하여 이보다 넓은 폭을 확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통행 가능'이라는 표현 때문에 좁은 폭도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문항은 2인이 한 줄로 지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나란히' 통행하는 경우이므로 두 사람의 점유폭을 동시에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선 문제에서는 먼저 경로의 단순성, 서로 다른 동선의 분리, 교차 최소화, 주요 동선의 단축을 확인한다. 폭을 묻는 선지는 '한 사람 통행'인지 '두 사람의 나란한 통행'인지 구분하여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동선은 단순·분리·교차 최소·주요 동선 단축이 원칙이며, 나란히 걷는 인원이 늘면 필요한 폭도 넓어진다.

NoteBase

14. 상록침엽수이며, 교목인 수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나무 ② 조팝나무
③ 둥근향나무 ④ 왕벗나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목을 잎의 지속성·형태와 생육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상록침엽수이면서 교목인 수종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록수는 여러 해 동안 잎을 유지하여 사계절 잎이 달려 있는 수목이고, 침엽수는 대체로 바늘 모양이나 비늘 모양의 잎을 가진 수목이다. 교목은 하나의 뚜렷한 줄기가 발달하여 크게 자라는 나무이며, 관목은 지면 가까이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지고 비교적 낮게 자라는 나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나무는 잎이 바늘 모양이고 사계절 잎을 유지하며 큰키나무로 자라므로 상록침엽수이자 교목이다.
② X — 조팝나무는 상록침엽수인 교목이 아니라 잎이 넓고 겨울에 떨어지는 낙엽활엽 관목이다. 올바르게는 '조팝나무는 낙엽활엽 관목이다'라고 분류한다.
③ X — 둥근향나무는 상록침엽수에는 해당하지만 교목이 아니라 낮고 둥글게 자라는 관목이다. 올바르게는 '둥근향나무는 상록침엽 관목이다'라고 분류한다.
④ X — 왕벚나무는 교목이지만 상록침엽수가 아니라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활엽수이다. 올바르게는 '왕벚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이다'라고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③ 둥근향나무도 상록침엽수라는 점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상록침엽수'와 '교목'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하며, 둥근향나무는 관목이므로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록·낙엽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침엽·활엽을 구분한 뒤, 마지막으로 교목·관목을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종만 정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나무는 상록침엽 교목, 둥근향나무는 상록침엽 관목, 조팝나무는 낙엽활엽 관목, 왕벚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이다.

NoteBase

15. 식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재 설계는 배식 패턴에 의하여 수직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수목의 배치가 해당 장소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② 독립 식재는 수형이 좋거나 중량감이 있는 정형수를 단독으로 식재하는 방법이다.
③ 임의 식재는 크고 작은 세 그루의 크기가 다른 수목을 부등변 삼각형의 꼭짓점에 배치하여 비대칭 균형을 이루는 부등변 삼각형 식재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정형식 식재의 기본 형식으로, 이의 응용으로 감각망을 순차적으로 확산하면서 5점 식재, 7점 식재로 발전해 갈 수 있다.
④ 열 식재는 일정 간격으로 직선상에 식재하는 방법이고, 교호 식재는 두 줄의 열 식재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식재하는 방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식재의 기본 배식 형식인 독립 식재, 부등변 삼각형을 바탕으로 한 임의 식재, 열 식재와 교호 식재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 식재는 수형이 좋거나 중량감이 있는 수목 한 그루를 단독으로 배치하여 초점과 상징성을 만드는 방식이다.
자연풍경식 식재는 규칙적인 대칭보다 크기와 간격의 변화를 활용한 비대칭 균형을 추구하며, 부등변 삼각형 식재와 이를 확장한 임의 식재가 이에 해당한다.
열 식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에 배치하는 방식이고, 교호 식재는 두 줄의 수목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식재 패턴은 수목의 반복과 배열로 수직적 경관을 형성하며, 수목의 배치 방식은 장소의 질서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O — 독립 식재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시각적 중량감이 있는 정형수를 한 그루만 식재하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형식재의 기본 형식'이다. 부등변 삼각형 식재는 서로 다른 크기의 수목을 삼각형의 꼭짓점에 배치하여 비대칭 균형을 만드는 자연풍경식 식재의 기본 형식이며, 임의 식재는 이 삼각망을 이어 확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연풍경식 식재의 기본 형식'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열 식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에 배치하고, 교호 식재는 두 줄의 수목이 마주 서지 않도록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부등변 삼각형, 비대칭 균형, 삼각망의 확장이라는 설명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를 '정형식재'라고 분류한 한 단어가 함정이다. 규칙적 대칭은 정형식재, 크기와 간격이 다른 비대칭 균형은 자연풍경식 식재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식의 형태와 분류를 함께 확인한다. 한 그루 강조는 독립 식재, 직선 한 줄은 열 식재, 두 줄 엇갈림은 교호 식재, 부등변 삼각형과 비대칭 균형은 자연풍경식 식재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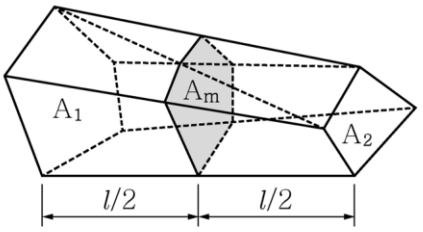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독립은 한 그루, 열은 한 줄, 교호는 엇갈림, 부등변 삼각형은 자연풍경식 비대칭이다.

NoteBase

16. <보기>에서 각주공식으로 토량을 계산한 값은?

<보기>



$A_1=20m^2$, $A_2=10m^2$, $A_m=15m^2$, $l=16m$

① $190m^3$ ② $210m^3$

③ $240m^3$ ④ $270m^3$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 끝 단면적과 중앙 단면적이 주어진 토공량을 각주공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_1 = 20m^2, A_2 = 10m^2, A_m = 15m^2, l = 16m$이다.
구해야 할 값: 두 끝 단면 사이의 토공량 V이다.
주의할 조건: 중앙 단면적 A_m에는 가중치 4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각주공식은 다음과 같다.

$$V = \frac{l}{6}(A_1 + 4A_m + A_2)$$

양 끝 단면적뿐 아니라 구간 중앙의 단면적도 주어졌으므로, 단면 변화가 반영되는 각주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주어진 값을 각주공식에 대입한다.

$V = \frac{16}{6}(20 + 4 \times 15 + 10)$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20 + 60 + 10 = 90$이다.

$V = \frac{16}{6} \times 90 = 240m^3$

따라서 토공량은 $240m^3$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0m^3$는 각주공식에 주어진 값을 정확히 대입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 계산한 토공량은 $240m^3$이다.
② X — $210m^3$는 중앙 단면적에 가중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값은 $240m^3$이다.
③ O — 각주공식으로 계산하면 $V = 240m^3$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 $270m^3$는 $A_1 + 4A_m + A_2 = 90m^2$를 사용한 계산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값은 $240m^3$이다.

오답 포인트

중앙 단면적 A_m을 단순히 한 번만 더하거나, 가중치 4를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또한 각주공식의 분모 6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 끝 단면적과 중앙 단면적이 함께 주어지면 $V = \frac{l}{6}(A_1 + 4A_m + A_2)$를 선택하고, 중앙 단면적의 가중치 4와 최종 부피 단위 m^3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각주공식의 단면적 가중치는 '끝 1, 중앙 4, 끝 1'이며 전체에 $l/6$을 곱한다.

NoteBase

17. 조경 수목의 규격 표시 방법 중 지표면에서 수관의 맨 아래 가지까지의 수직높이를 나타낸 것은?

① 수고 ② 지하고

③ 수관폭 ④ 흉고직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경 수목의 규격 용어인 수고, 지하고, 수관폭, 흉고직경이 각각 어느 부위를 재는 값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을 이루는 맨 아래 가지까지의 수직높이이다.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목의 가장 높은 끝까지의 높이이고, 수관폭은 가지와 잎이 퍼진 수관의 너비이며,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일정한 가슴높이의 줄기 지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목의 가장 높은 끝까지 잰 전체 높이이므로, 맨 아래 가지까지의 높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수고'는 '지하고'로 고쳐야 한다.
② O —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의 맨 아래 가지까지의 수직높이를 뜻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수관폭은 수관이 수평으로 퍼진 너비를 나타내므로 수직높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수관폭'은 '지하고'로 고쳐야 한다.
④ X —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일정한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줄기의 지름이므로 맨 아래 가지까지의 높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흉고직경'은 '지하고'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높이'라는 말만 보고 ① 수고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수고는 나무 꼭대기까지의 전체 높이이고, 문제처럼 맨 아래 가지까지의 높이를 물으면 지하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측정의 끝점을 확인한다. 나무 꼭대기까지이면 수고, 맨 아래 가지까지이면 지하고, 수평으로 퍼진 너비이면 수관폭, 줄기의 굵기이면 흉고직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꼭대기 높이는 수고, 가지 아래 빈 줄기 높이는 지하고이다.

NoteBase

18. 계약 조건과 설계 도서에 지정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공사를 가장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공관리 분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질 관리 ② 원가 관리
③ 자원 관리 ④ 공정 관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가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시공하는 관리 분야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질 관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정해진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경제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원가 관리는 공사비를 예산 범위에서 통제하는 활동이고, 자원 관리는 인력·자재·장비를 적절히 배분하는 활동이며, 공정 관리는 작업 순서와 기간을 계획·통제하는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품질 관리는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에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므로 제시된 목표와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원가 관리'이다. 원가 관리는 공사비를 계획하고 실제 비용을 비교·통제하는 분야이며, 제시된 설명에 맞는 올바른 용어는 '품질 관리'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자원 관리'이다. 자원 관리는 인력·자재·장비 등의 투입과 배분을 관리하는 분야이며, 설계도서의 품질 기준 충족을 직접 목표로 하는 올바른 용어는 '품질 관리'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정 관리'이다. 공정 관리는 작업 순서와 소요 기간을 계획·통제하여 예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진행하는 분야이며, 제시된 설명에 맞는 올바른 용어는 '품질 관리'이다.

오답 포인트

문장에 '가장 경제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어 원가 관리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판단의 중심은 경제성 자체가 아니라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에 지정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품질 관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계도서·시방서의 기준 충족과 요구 품질 확보가 중심이면 품질 관리, 비용 통제가 중심이면 원가 관리, 인력·자재·장비의 배분이 중심이면 자원 관리, 작업 순서·기간 준수가 중심이면 공정 관리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준 충족은 품질, 비용 통제는 원가, 투입 배분은 자원, 기간 통제는 공정이다.

NoteBase

19. 수목의 생장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목의 수분과 양분은 수평 이동보다 수직 이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 줄기의 위쪽 부분 가지는 굵게 자라고 밑 부분 가지는 약하게 자란다.
③ 곁눈이 가지 끝의 정상부 눈보다 우세하게 신장한다.
④ 잎에서 증산하는 물의 양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의 2배 이상 되어야 정상적으로 생육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목의 생장에서 물질 이동의 방향성, 가지의 굵기 생장, 정아우세, 수분수지의 기본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목의 물질 이동: 줄기와 가지의 축을 따라 이어진 통도조직 때문에 수직 방향의 이동이 수평 방향보다 우세하다.
가지 생장: 아래쪽 가지는 먼저 형성되어 생장 기간이 길고 굵으며, 위쪽 가지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가늘다.
정아우세: 가지 끝의 정아가 곁눈보다 우세하게 신장하는 현상이다.
수분수지: 뿌리가 흡수한 물은 대부분 잎의 증산으로 빠져나가며, 정상 생육에는 흡수와 손실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분과 양분은 줄기와 가지의 축 방향으로 연결된 통도조직을 따라 이동하므로 수평 이동보다 수직 이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위쪽 부분 가지는 굵게 자라고 밑 부분 가지는 약하게 자란다'이다. 실제로는 먼저 형성되어 생장 기간이 긴 아래쪽 가지가 굵고, 나중에 형성된 위쪽 가지는 상대적으로 가늘다.
③ X — 틀린 부분은 '곁눈이 가지 끝의 정상부 눈보다 우세하게 신장한다'이다. 실제로는 가지 끝의 정아가 곁눈의 생장을 억제하며 우세하게 신장하는 정아우세가 나타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잎의 증산량이 뿌리 흡수량의 2배 이상이어야 정상적으로 생육한다'이다. 실제로는 뿌리의 수분 흡수가 증산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여 수분수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증산량이 흡수량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없다.

오답 포인트

②는 수관 위쪽의 생장세와 가지의 누적 굵기 생장을 혼동하게 만든다. ③은 정아와 곁눈의 우세 관계를 반대로 제시했고, ④는 증산과 흡수의 균형을 임의의 '2배' 조건으로 바꾸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질 이동은 축 방향의 수직 이동, 가지 굵기는 형성 시기와 누적 생장 기간, 눈의 생장은 정아우세, 물의 출입은 흡수와 증산의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동은 수직, 아래 가지는 굵게, 정아는 우세, 물은 흡수와 증산의 균형이다.

NoteBase

20. 도시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공원은 유치거리와 규모에 제한이 없다.
②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500m 이하이며, 규모는 1,500m^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가 1,000m 이하이며, 규모는 10,000m^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제공원 중 체육공원은 유치거리가 250m 이하이며, 규모는 10,000m^2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의 종류별 유치거리와 최소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생활권근린공원·체육공원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치거리는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주민이 있는 범위를 거리로 나타낸 기준이고, 규모는 공원이 확보해야 하는 면적 기준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공원은 유치거리와 규모에 제한이 없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규모 1, 500m^2 이상이고,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은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규모 10, 000m^2 이상이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이 없고 규모는 10, 000m^2 이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공원은 유치거리와 규모에 모두 제한이 없으므로 옳다.

② X
어린이공원의 규모를 $1,500m^2$ 이상이라고 한 부분은 맞지만, 유치거리를 500미터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③ X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의 규모를 $10,000m^2$ 이상이라고 한 부분은 맞지만, 유치거리를 1,000미터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1,000미터 이하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

④ X
체육공원의 규모는 $10,000m^2$ 이상이지만 유치거리는 250미터 이하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 제한 없음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최소 규모는 맞게 두고 유치거리만 서로 어긋나게 제시한 선지이다. ④도 체육공원의 최소 규모는 맞지만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인 250미터 이하를 섞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종류마다 유치거리와 규모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하나의 수치가 맞더라도 다른 수치가 틀리면 선지 전체는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은 거리·규모 모두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은 250미터·$1,500m^2$,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은 500미터·$10,000m^2$, 체육공원은 거리 제한 없음·$10,000m^2$이다.

NoteBase